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정수경^{1*}

¹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Senior Pensioners

Sukyong Chung^{1*}

¹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 Welfare, Woosong University

요약 연금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2년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2,7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29를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와 상관관계,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 가족생활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가족수입만족도, 우울,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만족도, 연간 연금총액 순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은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 전체 변량의 34.6%를 설명하였다($F=168.15, p<.001$). 본 연구는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연금의 효과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실질적 연금총액이 낮아 그 영향력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안정적 노후생활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금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지역사회 프로그램개발과 실질적인 적용 노력, 정부의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세심한 적용이 필요하다.

키워드 : 노인, 연금,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2,794 elderly people aged 65 or older receiving public pensions using data from the 2022 Korean Welfare Panel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receiving public pension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using IBM SPSS 29. As a result, the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of senior pensioners were in the order of self-esteem, family life satisfaction, leisure life satisfaction, family income satisfaction, depression, health status,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otal annual pension. This model explained 34.6% of the total variation in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receiving pensions ($F=168.15, p<.001$).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pensio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senior pensioners, but it was regarded that the effect would be relatively low due to the insufficient total pension amount. In order to improve the stable life and happiness of the elderl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ension system, develop programs in the community, make efforts to apply them practically, and carefully apply the government's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Key Words : elderly, pension, well-being, self-esteem, depression

This paper was written with the support of research fund from Wooso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ukyong Chung (csk6677@hanmail.net)

Received August 19, 2024

Revised October 1, 2024

Accepted October 20, 2024

Published October 28, 2024

1. 서론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고령인구는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도달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약 20년이 늘어났다고 한다[1]. 수명의 증가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목표로 독립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즐기는 행복한 노년기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2].

그러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 대비 9.3%가 증가하였으나 34.3%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1]. 이는 노인의 경제적 빈곤이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3]. 소득보장을 통한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공적 연금을 도입하였고[4] 2022년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 연금 지급률은 57.6%를 나타내고 있다[1]. 이는 노후의 경제적 준비 방법으로 연금이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 소득 보장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5]. 연금 지급 인원이 증가하고 공적 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공적 연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6] 공적 연금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우울이며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노인의 자아개념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8]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의 경우 노년기 역할상실이나 변화에 잘 적응하게 되고[9]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0],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으로 개인의 경험 내에 존재하며[11],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평가이다[12].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상태란 삶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서 경험이 많고 부정적 정서 경험이 적은 상태를 의미한다[2].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13, 14], 우울[7], 자아존중감[8], 스트레스[15], 소득[16], 여가생활 관련 프로그램 효과[17], 영향요인[2] 등이 연구되어 왔으나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금수급이 65세 노인 57.6%에 도달한 시점에서 연금수급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 정도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도 점점 더 확대될 연금수급 노인의 성공적 노후 관련 기초연구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연금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2년 한국복지패널[18] 원시자료를 이용한 이차 자료 분석의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3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17개 시도의 총 7,865가구를 조사한 한국복지패널[18] 2022년 17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자존감, 우울, 가족관계 및 여가생활만족도 등 주요 변수 무응답자를 제외한 2,7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변수

2.3.1 연금수급 노인

공적연금은 노후의 경제적 준비 방법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 등의 공적 연금[4]을 수급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3.2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아주 건강하다' 1점부터 '건강이 아주 안 좋다' 5점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2.3.3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를 10점, 가능한 최악의 상태를 0점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수집한 점수를 말한다.

2.3.4 우울

우울은 Kohout, Berkman, Evans & Cornoni-Huntley의 CESD-11[19]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점수로 측정되었다. 2개의 역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 α 는 .906이었다.

2.3.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 [20] 총 10개의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 4점 Likert점수로 측정되었고 5개의 역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hronbach α 는 .816이었다.

2.3.6 기타 주요 변수

사회적 관계, 여가생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으로 조사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7점으로 조사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IBM SPSS 29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특성은 서술적 통계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연금수급 노인은 총 2,794명으로 남자 1,536명(56.0%), 여자 1,258명(45.0%)이었다. 나이는 평균 75.1세로 65~70세 834명(29.8%), 76~80세 709명(25.4%), 71~75세 645명(23.1%), 81~85세 436명(15.6%), 86~90세 148명(5.3%), 91세 이상 22명(0.85) 순이었다. 결혼상태는 유배우자 1,660명(59.4%), 사별 954명(34.1%), 이혼 128명(34.15), 별거 32명(1.1%), 독신 20명(0.7%) 순이었다.

연금 유형은 국민연금 2,521명(90.2%), 공무원연금 235명(8.4%),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각 17명(0.6%), 별정직 우체국연금과 보훈연금 각 2명(0.15) 순이었다. 연간 연금

총액은 6백만 원 미만이 2,167명(77.6%)으로 가장 많았고 6백만 원에서 1천2백만 원이 317명(11.3%), 1천2백만 원에서 1천8백만 원이 48명(1.7%), 1천8백만 원 이상이 1명(0.04명) 순이었고 무응답이 261명(9.3%)이 포함되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이 아주 안 좋다' 62명(2.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876명(31.2%), '보통' 995명(35.6%), '건강한 편이다' 828명(29.936명), '아주 건강하다' 36명(1.3%)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598명(21.4%), 고졸 171명(6.1%), 전문대학 19명(0.75%), 대학 44명(1.6%) 대학원 이상 11명(0.4%) 무응답이 1,951명(69.8%)이었다. 패널자료를 역코딩하여 '아주 건강하다' 5점 순으로 부여하여 평균 2.9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2,794)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Gender	Males	1,536(55.0)
	Females	1,258(45.0)
Age (yr)	65-70	834(29.8)
	71-75	645(23.1)
	76-80	709(25.4)
	81-85	436(15.6)
	86-90	148(5.3)
	>91	22(0.8)
		75.1±6.4
Marital status	Spouse	1,660(59.4)
	Widowed	954(34.1)
	Divorced	128(4.6)
	Separated	32(1.1)
	Unmarried	20(0.7)
Pension type	National	2,521(90.2)
	Civil servant	235(8.4)
	Private school teacher	17(0.6)
	Military	17(0.6)
	Special post office	2(0.1)
	Veterans	2(0.1)
Annual pension(ten thousand won)	<600	2,167(77.6)
	601-1200	317(11.3)
	1200-1800	48(1.7)
	>1800	1(0.04)
	No answer	261(9.3)
Health status	Very poor	62(2.2)
	Not healthy	873(31.2)
	Moderate	995(35.6)
	Healthy	828(29.6)
	Very healthy	36(1.3)
	2.97±0.87	
Education status	≤ Middle school	598(21.4)
	High school	171(6.1)
	Junior college	19(0.7)
	University	44(1.6)
	Graduate school	11(0.4)
	No answer	1,951(69.8)

3.2 주요 변수의 정도

주요 변수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먼저 가족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3.1점으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고 여가생활 만족도 3.3점, 사회적 관계 3.7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가족생활 만족도는 5.4점으로 보통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최저 20점부터 최고 45점까지 평균 35.5점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최저 13점부터 최고 43점으로 평균 17.1점으로 나타났다. 연간 연금총액은 응답자 중 최고는 2,412만 원이었으며 평균 379만 원이었다. 주관적 행복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10 점까지 평균 6.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main variables

Variables	Min	Max	Meant±SD
Household income	1	5	3.10±0.80
Leisure life	1	5	3.33±0.72
Social relationship	1	5	3.69±0.62
Family life	1	7	5.42±1.16
Self-esteem	20	45	35.53±3.84
Depression	13	43	17.10±4.45
Total annual pension (ten thousand won)	0	2,412	379.06±268.53
Subjective well-being	0	10	6.45±1.65

3.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주관적 행복감은 주관적 건강상태($r=.284, p<.001$), 가족수입($r=.328, p<.001$), 여가생활($r=.349, p<.001$), 사회적 관계($r=.347, p<.001$), 가족생활($r=.376, p<.001$), 자아존중감($r=.493, p<.001$) 및 연간 총액($r=.171,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우울($r=-.352,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Degree and correlation of the main variables

	Health status	Household income	Leisure life	Social relationship	Family Life	Self-esteem	Depression	Total annual pension
Health status	1							
Household income	.239**	1						
Leisure life	.191**	.259**	1					
Social relationship	.200**	.223**	.477**	1				
Family Life	.148**	.238**	.226**	.294**	1			
Self-esteem	.351**	.296**	.352**	.402**	.328**	1		
Depression	-.325**	-.229**	-.246**	-.270**	-.216**	-.554**	1	
Total annual pension	.232**	.100**	.128**	.123**	.193**	.193**	-.183**	1
Subjective well-being	.284**	.328**	.349**	.347**	.376**	.493**	-.352**	.171**

** $p<.001$

3.4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건강상태, 가족수입, 여가생활, 사회적 관계,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우울, 연간 연금총액을 독립변수로 각각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분석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변수들의 공차 한계는 최대가 .925, VIF는 1.76으로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상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값은 1.66으로 기준값 2와 근접하여 변수 간의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연금수급 노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246, p<.001$), 가족생활 만족도($\beta=.194, p<.001$), 여가생활 만족도($\beta=.124, p<.001$), 가족수입 만족도($\beta=.113, p<.001$), 우울($\beta=-.082, p<.001$), 건강상태($\beta=.067, p<.001$), 사회적 관계 만족도($\beta=.062, p<.001$), 연간 연금총액($\beta=.043, p<.00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들 변수는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 전체 변량의 34.6%를 설명하였고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68.15, p<.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to the life satisfaction

(N=2,533)

Variables	B	SE	β	t(p)
(Constant)	-1.045	.393		-2.660(.008)
Self-esteem	.105	.009	.246	11.534(<.001)
Family life	.275	.025	.194	11.052(<.001)
Leisure life	.286	.043	.124	6.632(<.001)
Household income	.234	.036	.113	6.499(<.001)
Depression	-.030	.007	-.082	-4.157(<.001)
Health status	.127	.034	.067	3.758(<.001)
Social relationship	.163	.051	.062	3.195(.01)
Total annual pension	.000	.000	.043	2.557(.011)
$R^2 = .35, \text{Adj. } R^2 = .35, F=(p<.001)$				

4. 논의

본 연구는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서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Lee[21]의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은 노년기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게 되며[22]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23] 노인의 성공적인 노후 준비와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스마트기기 활용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주관적 행복감을 높인다는 Kim의 연구결과[24]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 적용으로 자아존중감을 증가시켜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인 연금수급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노인 주관적 행복감과 차이가 있었는지는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연간 연금총액이 평균 379만 원으로 6백만 원 미만이 78%를 나타내어 앞으로 연금수급액이 증가하면서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변화에 대해 그 추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생활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친분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Lee, Lee & Lim[2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가족관계망을 분석한 Kim & Park[26]은 배우자 중심형과 자녀 중심형 가족관계 등 다양한 가족관계망의 존재를 가정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정책들의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노인 증가도 고려할 필요도 있으며 친구, 친척, 이웃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은퇴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27,28]. 여가활동 참여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

는데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자아존중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 정신적 및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만족감을 준다. 또한 여가활동은 단순히 건강 유지나 휴식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자아실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29]. 따라서 노인 연령에 맞는 적합한 여가활동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지역사회 수준에서 접근성이 좋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노인 연금수급자들의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연금총액이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연금 개혁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수입만족도와 연간 연금총액은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먼저 연구대상자인 연금수급 노인의 연금 종류를 보면 국민연금이 90.2%에 해당하였고 연간 연금총액은 6백만 원 미만이 77.6%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 1988년 도입되어 이론적으로는 '성숙기'에 들어갔다고 한다[30]. 2023년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총수급자는 657만여 명이며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98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61만9천 원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연간 연금총액기준 평균 월 연금액은 50만 원 미만 이어서 노후보장에는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가족의 수입만족도가 노인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Ha[5]의 연구에서도 연금수급 노인의 경우 주관적 경제수준 요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양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증가와 노인 빈곤을 강화하므로 노인복지정책의 현실적 검토와 연금 기능의 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노인의 경제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연금수급자 노인의 과거 주된 일자리 축적 경험과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31].

본 연구에서 노인 연금수급자의 우울은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우울 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은 높은 관계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32,33]와 일치한다. 이에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고 낮추기 위한 노인의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과 우울 예방을 포함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사회관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 연금수급자 노인은 앞으로 지속해서 증

가할 것이므로 사회적 복지구축망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우울은 주관적 행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Wang, Hoe & Kim[3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노인은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낮은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미래의 부정적인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초기 징후일 수 있으므로[34]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인에게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가족 수입 만족도, 우울,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만족도, 연간 연금총액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 변인들이 연금수급 노인들에만 특성화된 변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 앞으로 연금수급이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검증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인 연금수급 노인의 약 78%가 연간 연금총액이 6백만 원 미만인 평균 379만 원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연금수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후 소득 보장 수단으로서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고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집단의 노후 소득보장을 측면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복지 관련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향후 연금제도와 관련 제도의 개편은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중간소득 및 고소득층의 노후 소비를 위한 재원을 공적 연금보다는 민간 연금과 여타 자산의 자발적인 축적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제도가 노년층의 빈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35]. 본 연구에서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연간 연금총액은 미미한 영향력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노인 주관적 행복감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공적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와 낮은 연금 문제를 보완하여[36] 우리나라 공

적 연금의 양적, 질적 향상으로 향후 안정된 노후생활의 기반이 되어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연간 연금총액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그 설명력은 미미하였다.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이 23.5%로 가장 높았고 가족생활, 여가생활, 가족수입, 우울, 건강상태, 사회적 관계, 연간 연금총액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 모형의 설명력은 34.6%이다. 유의한 영향요인들은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연금수급 노인들과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 노인의 안정적 노후 생활과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금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프로그램개발과 실질적인 적용 노력과 정부의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세심한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금이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연금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실질적 연금총액이 낮아 그 영향력은 비교적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적 연금액이 증가되면서 소득 보장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연금수급 노인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3). Retrieved from <http://www.kostat.go.kr>
- [2] S. J. Gong, E. H. Lee, & M. O. Ha. (2005). Factors Influencing the Constructs of Subjective Well-Being for the Korean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30, 141-169.
- [3] H. S. Kim. (2018). Happiness and human resources in an aging society. *National Economy*, 331, 39-41.
- [4] H Choi & J-S. You. (2022). The Effects of Public Pensions and Basic Pension on Income Inequality in Old Age. *Pension Research*, 12(1), 21-50.

- [5] C. K. Ha. (2007).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 in life satisfaction between senior citizens on public pension plans and those without pension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3(3), 1-21.
- [6] K. D. Choi & H. Kwon. (2022). The Impact of Receiving Public Pension on Lifestyle of Middle and Old Aged People. *Journal of Korean Economics Studies*, 40(4), 55-85.
DOI: 10.46665/jkes.2022.12.40.4.55
- [7] J-W. Kim. (2023).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Aged 65 and Older Living in a Local C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4(10), 724-731.
DOI: 10.5762/KAIS.2023.24.10.724
- [8] I-S. Kwon., N-M. Park., J-K. Yeo & J-Y. Kim. (2012). The Effects of Self-Esteem of the Elderly in Social Dance of exercise Rehabilitation program on Psychological Happiness and Life-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xercise Rehabilitation*, 8(4), 3-14.
- [9] R. N. Butler, M. I. Lewis & T. Sunderland. (1998). *Aging and mental health: Positive psychosocial and biomedical approaches* (5th ed.). Boston: Allyn & Bacon.
- [10] J. Cho, J. Pyo & S. Kim. (2021).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Ability to Perform Daily Life in Old Age on Happiness Through Self-esteem.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3), 673-687.
DOI: 10.22143/HSS21.12.3.48
- [11]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
- [12] E. Diener, M. Diener & C. Diener. (1995). Factors predict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n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51-864.
DOI: 10.1037/0022-3514.69.5.851
- [13] Y-E. Kim & Y-S. Lee. (2017).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elderly people using welfare center on happiness.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4), 217-238.
DOI: 10.21194/kjgsw.72.4.201712.217
- [14] Y. H. Park & E. M. Noh.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the elderly People. *Korean Journal of Academic Convergence with Health and Welfare*, 7(1), 37-48.
- [15] S. J. Kim et al. (2015). The Effects of Stressors on Subjective Well-Being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19(1), 17-23.
- [16] M. Chun. & J. H. Kim. (2017). The Effects of its Proportions of Different Sources of Old Age Income on Older People'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1), 283-303.
DOI: 10.21194/kjgsw.72.1.201703.283
- [17] S. Back. (2017). The Effect of Song Focus Music Therapy Program on th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4), 869-885.
DOI: 10.22143/HSS21.8.4.44
- [18] Korea Welfare Panel. (2021). Retrieved from <https://www.koweps.re.kr:442/main.do;jsessionid=DCFA2742D6874E2EEAB9361131BCD413>
- [19] F. J. Kohout, L. F. Berkman, D. A. Evans & J. Cornoni-Huntley,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2), 179-193.
<https://doi.org/10.1177/089826439300500202>
- [20]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1] D. Lee. (2024). Structural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family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 Focusing on differences according to income level. *Korea and Global Affairs*, 8(1), 803-845.
DOI : 10.22718/kga.2024.8.1.031
- [22] J. Rodin & Z. Langer. (1980). Aging Labels: The Decline of Control and the Full of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Issues*, 36(2), 12-29.
- [23] E. Choi. (2023). Effects of Active Senior'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Quality of Life by Mediating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9(1), 21-31.
DOI: <https://doi.org/10.52660/JKSC.2023.29.1.21>
- [24] J-Y. Kim. (2022). The Effect of the Use of Smart

- Devices by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2(5), 424-434.
DOI: 10.5392/JKCA.2022.22.05.424
- [25] H. K. Lee, J. K. Lee & S. J. Lim. (2019). The Effects of Family, Economic,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and Old Elderly - Focusing on Gender Comparison. *Academic Presentation Papers of the Korean Society of Family and Social Welfare*, 1, 158-164.
- [26] Y. B. Kim & J-S. Park. (2004). The Family Network and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4(1), 169-185.
- [27] S. Nam. (2024).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Leisure Participation,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Retired Older People: Using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9(1), 9-32.
DOI: 10.21194/kjgsw.79.1.202403.9
- [28] D-H. Kim. (2019). The Effects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Performance Level of Older People on their Life Satisfaction: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Leisure Activity Time. Unpublished master thesis. Honam University. Gwanju.
- [29] J. U. Back, S. W. kim & M. Y. Kim. (2010). Factors that influence satisfaction level towards the life by the leisure activity of the users of the senior citizens' leisure welfare faciliti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7(1), 37-58.
- [30] J-Y. Kim & S. Lee. (2024). Effect of subjective health status on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88, 31-61.
DOI: 10.15300/jcw.2024.88.1.31
- [31] T. Oh & J. Lee. (2024). The Income Cliff Effect after Retirement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72(1), 29-71.
DOI: 10.22841/kjes.2024.72.1.002
- [32] J-S. Lee & H-A. Kim. (2017). The Impact Family Relationship on Life of Satisfaction of the Elderly :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2(2), 27-36.
DOI: 10.21097/ksw.2017.05.12.2.27
- [33] M. Tae. (2021).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Adaptabil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3), 581-596.
DOI: 10.22143/HSS21.12.3.41
- [34] J. J. Wang, M. Hoe. & Y. Kim. (2022). Examining the Effect of Health Status on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2(3), 351-368.
- [35] Statistics Korea (2019). The role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securing retirement income. Retrieved from https://kostat.go.kr/board.es?mid=a90104010307&bid=12308&tag=&act=view&list_no=379484&ref_bid=
- [36] Y-S. Kim & Y-A. Yang. (2023).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Public Pension Supply and Demend,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15(2), 95-108.
DOI : 10.34264/jkafa.2023.15.2.95

정수경(Sukyoung Chung)

[정회원]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안전문화, 만성질환관리
• E-Mail : skyoung1@wsu.ac.kr